

알파타르트 웹소설의 서사 전략 연구

문은혜*

1. 왜 알파타르트에 주목하는가
2. 인물: 자기 증명을 하는 딸들
3. 플롯: 선행기법과 반복 서술
4. 웹소설: 알파타르트×치런의 브랜드
5. 로맨스판타지를 이끌어가는 방법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로맨스판타지의 대표 작가인 알파타르트의 서사 전략을 인물, 플롯, 웹소설의 세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고, 알파타르트가 젠더 감수성과 대중적 서사 규범을 조율하며 장르의 문법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주인공은 성장 서사를 기반으로, ‘오빠라는 존재를 둔 여동생’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다. 그녀는 오빠와 경쟁하며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투한다. 태어나면서 권력을 자연스럽게 계승 받는 오빠와 달리 그녀는 독립하기 위해 자기 증명을 해야 한다. 그녀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자기실현적 여성으로 재현되기까지 시련과 경쟁의 서사를 지나 성장한다.

또한 선행기법과 반복 서술을 공통으로 활용한다. 선행기법은 자극적인 사건을 먼저 서술한 후, 이전으로 돌아가 사건의 맥락을 점차 설명하면서 그 사건이 성취될 때까지 독자의 호기심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반복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강사

서술을 통해 독자는 사건의 의미를 처음과 달리 재해석하고, 주인공의 심리 변화에 공감하는 효과를 얻는다.

일러스트는 웹소설을 ‘보게 하는’ 큰 역할을 한다. 작품의 분위기와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독자들의 기대감과 몰입감을 높인다. 알파타르트와 협업하는 치런의 일러스트는 회화적 리얼리즘과 고전주의적 장식을 결합한 화려하고 섬세한 화풍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해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미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여성 중심의 서사 구조를 강조한다.

알파타르트의 서사 전략은 인물의 형상화, 플롯의 서술 구조, 웹소설의 시각적 전략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로맨스판타지 웹소설의 미학적·장르적 규범을 확장하고, 현대 여성 독자의 욕망과 젠더 감수성을 깊이 있게 반영한다. 이는 단순히 알파타르트가 로맨스판타지의 인기 작가라는 위상을 넘어서, 장르 내부에서 전복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선도하는 내러티브 기획자로서 자리매김함을 발전한 데 연구 의의가 있다.

(주제어: 알파타르트, 서사 전략, 로맨스판타지, 인물, 플롯, 웹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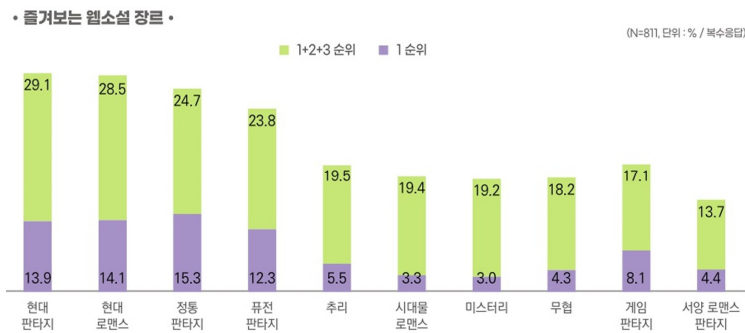
1. 왜 알파타르트에 주목하는가

웹소설 시장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조 3,500억 원에 이르렀다.¹⁾ 그중에서 로맨스와 판타지는 가히 웹소설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다. 2024년 웹소설 이용자가 평소 즐겨보는 장르는 ‘현대판타지’(29.1%)이며, ‘현대로맨스’(28.5%), ‘정통판타지’(24.7%)로 이어진다.²⁾ 이는 2020년³⁾

1) ㈜비온드리서치,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5, 38쪽.

2) 위의 책, 293쪽.

과 2022년⁴⁾에 있었던 이용자 실태조사와 차이를 보이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20년에는 ‘판타지’(61.6%), ‘로맨스’(45.7%), ‘로맨스판타지’(44.7%)의 순으로, 2022년에는 ‘현실로맨스’(47.4%), ‘판타지’(46%), ‘판타지로맨스’(41.1%)순으로 즐겨보는 장르가 나타난다. 이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시, 설문 응답의 항목 범주를 매년 다르게 설정한 결과값이라고 예상된다.⁵⁾



〈그림 1〉 즐겨보는 웹소설 장르(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3) 케이디앤리서치, 『2020년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58쪽.
 4) ㈜비온드리서치,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195쪽.
 5) 예를 들어 2022년 경우 11개였던 설문지의 응답 항목 범주가 2024년에는 21개의 응답 항목 범주로 늘어났다. 이는 웹소설의 하위장르에 대한 고정값이 없고, 장르 교섭 양상으로 계속 가변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실태조사(391쪽)의 경우 오히려 2016년에 발표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시(18쪽)를 응답 항목 범주로 따름으로써 시대에 역행하여 응답 항목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웹소설의 하위장르는 계속 축소 중인데도 말이다. 카카오페이지의 경우, 판타지, 현판, 로맨스, 로판, 무협, BL, 드라마 7개 장르이며, 네이버시리즈의 경우, 판타지, 현판, 로맨스, 로판, 무협 5개 장르로 축소되었다.(2025.06.05. 현재)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위값 10개 응답 항목에서 로맨스와 판타지가 차지하는 세부 장르가 7개라는 점이다. 이는 로맨스와 판타지가 웹소설을 견인하는 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판타지의 증식은 놀랍다. 판타지는 다른 장르와의 교섭을 매섭게 강행하는 중이다. 판타지와 로맨스가 만날 때, ‘판타지로맨스’가 될 것인지, ‘로맨스판타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결국 ‘로맨스판타지’로 안착되었지만 말이다.⁶⁾

로맨스판타지는 다양한 세부 장르와의 교섭을 통해 여성향 콘텐츠에서 여성의 시대적 욕망을 충실히 반영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르의 유연성과 감수성은 로맨스판타지 웹소설이 동시대 대중 서사의 중심 양식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웹소설을 선택할 때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인기순’(45.4%), ‘소재/줄거리’(42.7%), ‘장르’(35.3%) 순이다. ‘작가’를 고려하는 경우는 아직 15.2%에 지나지 않는다.⁷⁾ 웹소설의 역사에서 2013년⁸⁾을 원년으로 볼 때, 웹소설에서 개별 ‘작가’ 이야기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웹소설 시장에서 플랫폼 내 조회수나 다운로드 수, 판매량, 해외 수출, 2차 콘텐츠 확장 등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줄 때 작가의 위상은 괄목하게 드러난다.

알파타르트는 현재 로맨스판타지 웹소설 장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대표 작가로, 플랫폼 내 조회수, 다운로드 수, 판매량, 그리고 IP 확장 지표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한다. 알파타르트의 대표작품은 〈재혼 황후〉다. 〈재혼 황후〉는 2018년 연재 이래 1억 5,837만 다운로드 수

6) 텍스트릿, 「판타지가 로맨스를 만났을 때」, 『비주류선언』, 요다, 2019, 221-240쪽.
7) ㈜비욘드리서치,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5, 288쪽.
8) 고민정, 「한국 웹소설의 플랫폼 성장과 가능성」, 『전자출판연구』 제13호, 한국전자출판학회, 2019, 33쪽.

(2025.06.05. 현재)로 기록적인 인기를 누리며 웹툰으로 확장되었고, 웹툰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약 26억 회를 기록하며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는 글로벌 IP로 자리매김했다.⁹⁾ 또한 오디오드라마, 모바일 게임, 유튜브 영상화, 드라마, 광고, 단행본 등 다양한 2차 콘텐츠로 전환되고 있다. <하렘의 남자들>은 5,580만 다운로드 수(2025.06.05. 현재)를 기록하며 웹툰, 유튜브 영상화, 광고, 단행본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¹⁰⁾ <남편 도둑>¹¹⁾의 경우 네이버시리즈에만 연재되었고, 네이버웹소설 플랫폼에서 아직 연재되지 않았기에 잠재 독자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타르트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로맨스판타지 장르 관습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비틀고 재해석하는 전략을 통해 새로운 여성 서사를 구축하며, 장르 내에서 정전화되는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다.

알파타르트의 <재혼 황후> 이후 ‘황후의 재혼물’이 폭발적으로 반복 양산되거나, <하렘의 남자들> 이후 ‘역하렘물’이 유사 양산되는 양상은 알파타르트의 기획이 동시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선도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알파타르트의 서사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인기 작가의 서사 분석을 넘어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내러티브 기획자로서 젠더 감수성과 장르 관습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그 서사 전략을 살펴보는 데 의미 있는 시도가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성 인물을 남성 인물이 수행한 자리에 배치”(안

9) 알파타르트, <재혼 황후> 337화 완결, 네이버시리즈, 2018.11.02.~2023.01.24. <재혼 황후>는 배우 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하며 스튜디오 N이 제작을 맡기로 공식화했다. 김성현, <신민아·주지훈·이종석·이세영, ‘재혼 황후’로 뭉친다>, 『YTN』, 2025.04.14., https://star.ytn.co.kr/_sn/0117_202504140949383527. (검색일: 2025.06.14.)

10) 알파타르트, <하렘의 남자들> 1000화 완결, 네이버시리즈, 2020.03.01.~2023.06.30. 네이버웹소설 플랫폼은 본편(891편)만 연재하고 완결되었다.

11) 알파타르트, <남편 도둑> 258화 완결, 네이버시리즈, 2024.04.04.~2024.12.24.

상원, 2019)¹²⁾, 낭만적 사랑의 완성을 지연하고 배반하지만, “가부장적 구조로의 행복한 귀환”(류수연, 2021)¹³⁾, 비판적 계급 인식 없이 신분제를 전제로 작동한다거나 주체의 권력이 하층 계급의 희생 위에 구축(권경미, 2022)¹⁴⁾, 클리셰 변화는 현대 여성 독자들의 자아 인식 변화와 젠더 감수성 확장의 결과(김예니, 2022)¹⁵⁾, 여전히 ‘여성/남성’의 이성애 서사를 유지하는 이분법적 젠더 구분(조소연, 2024)¹⁶⁾,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유통 특성으로 인해 서사 형식이 매체 친화적으로 전환(최배은, 2017)¹⁷⁾, 웹소설 스토리텔링의 특징(김경애, 2017)¹⁸⁾ 등이 분석된 바 있으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장르적, 매체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집중되어 있어 개별 작가의 서사 전략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한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¹⁹⁾

-
- 12) 안상원,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 13) 류수연, 「여성인물의 커리어포부와 웹 로맨스 서사의 변화: 로맨스판타지의 ‘악녀’주人公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제29집,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 14) 권경미, 「로맨스판타지 웹소설의 신계급주의와 서사 특징: 책빙의물과 회귀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84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 15) 김예니, 「대중서사 속 클리셰의 변화양상」, 『돈암어문학』 제42집, 돈암어문학회, 2022.
- 16) 조소연, 「로맨스판타지 웹소설에 나타난 젠더 재현 양상과 그 의미」, 『대중서사연구』, 제30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4.
- 17) 최배은, 「한국 웹소설의 서술형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제23권 1호, 2017.
- 18) 김경애, 「‘보는’소설로의 전환, 로맨스 웹소설 문화 현상의 함의와 문제점」, 『인문사회 21』 제8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 19) 알파타르트의 작품 〈재혼 황후〉를 심층 분석한 학위논문으로는 두 편이 있다. 김도희, 『로맨스판타지 장르 연구: 네이버 웹소설 『재혼 황후』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21. 이지, 『로맨스판타지 웹소설 IP의 웹툰 전환 연구: 〈재혼 황후〉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22. 김도희의 논문은 〈재혼 황후〉의 장르적 성격과 웹소설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지의 논문은 〈재혼 황후〉의 내용적 측면, 형식적 측면의 웹툰 전환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알파타르트의 서사 전략을 전반적으로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알파타르트의 작품들에 공통으로 내재된 서사 전략을 인물 형상화, 플롯의 서술 시간성²⁰⁾, 웹소설 규범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세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알파타르트가 로맨스판타지 장르에서 젠더 감수성과 대중적 서사 규범을 조율하며 장르의 문법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알파타르트는 선도적 내러티브 기획자로서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인물: 자기 증명을 하는 딸들

아들/딸에 대한 역할 기대는 단순한 성별 구분 이상으로, 가부장적 문화와 가족 내 젠더 위계를 통해 차별적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아들은 가부장적 권력과 재산을 자연스럽게 상속받는 반면, 딸들은 독립적 자기 결정권을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과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이는 로맨스판타지의 신분제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요구된다.

알파타르트의 웹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은 특히 '자기 증명을 하는 딸들'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인물은 '오빠라는 존재가 있는 여동생'으로 가족 구조 내에서 독특한 사회적 위치를 점하며, 가부장적 권력에서 배제된 상태로부터 독립과 권력의 획득을 위해 분투하게 된다. 예컨대, <재혼 황후>의 나비에와 <하렘의 남자들>의 라트라실은 1남 1녀 구조에서 장녀이자 둘째, 동시에 막내의 위치를 지닌다. <남편 도둑>의 클레이시는 2남

로 살펴보기에는 <재혼 황후> 텍스트만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20) 플롯 중심의 시간성은 제라르 주네트의 『서사 담론』을 빌려 이야기하기로 한다. S.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역, 푸른사상사, 2003. 참조.

3녀 구조에서 삼녀로 생물학적으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사회적 역할은 장녀와 유사하게 수행하면서 자기 증명을 위한 도전을 지속해야 한다. 이는 아들/딸이라는 젠더 위계와 출생 순서에 따른 사회적 역할 기대가 중첩되면서, 여성 인물이 구조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물 유형은 현대 핵가족 사회의 여성 독자들이 겪는 복합적 역할 기대와 깊이 공명한다. 특히 딸들이 겪는 억압된 욕망, 정서적 돌봄의 책임, 그리고 독립된 자아 형성과 권력 획득 과정에서의 긴장과 갈등은 강력한 공감을 이끌며, 로맨스판타지 장르에서 핵심적인 서사적 정서 구조를 형성한다. 아들러가 제시한 출생 순서에 따른 성격 특징으로 첫째의 책임감과 리더십, 둘째의 경쟁적이고 야망적인 성향이나 막내의 창의성과 자유로움 역시 인물들의 복합적인 심리 묘사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결국 알파타르트 여성 인물은 권력을 자연스럽게 승계받는 오빠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실현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며, 자기 증명의 과정을 통해 독자와 감정적, 심리적 연대를 촉진하는 현대적 여성의 표상으로 자리잡는다.

알파타르트의 웹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성 인물은 성장 서사를 기반으로, 1남 1녀에서 ‘오빠라는 존재를 둔 여동생’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다. 그녀들은 오빠와 경쟁하며 그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투한다. 태어나면서 권력(작위나 재산)을 자연스럽게 계승 받는 오빠와 달리 그녀들은 독립하기 위해서 자기 증명을 해야 한다. 그녀들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로맨스판타지 서사의 자기실현적 여성이며, 감정과 권력을 조율하며 선택하는 주체로 재현되기까지 시련의 서사를 지나 성장해야 한다.

알파타르트 <하렘의 남자들>의 라트라실에게는 황후 소생의 친오빠 레이시안과 후궁 소생의 이복오빠 트라탈라가 있다. 선황제인 아버지는 레

이시안이 후계자를 내려놓자, 라트라실을 황태녀로 삼는다. 하지만 라트라실을 황태녀로 삼는다는 황제의 말에도, 신하들은 ‘정통성은 없지만 황자’인 트라탈라와 ‘정통성은 있지만 황녀’인 라트라실을 지지하는 두 세력으로 나뉜다.

“무슨 소리? 다음 황태자는 당연히 트라탈라 황자님이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라트라실 황녀님께서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제왕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황태녀로 모시다니요!”

“절대로 라트라실 황녀님께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오나 폐하, 선대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이 경우에는 트라탈라 황자님께서서 황태자 자리에 오르는 게 옳습니다.”

“그럼요! 트라탈라 황자님께서서는 스승들이 놀랄 정도로 영민한데다 진취적이십니다. 타리움 제국을 더욱 강하게 부흥시킬 것입니다.”²¹⁾

위 인용문은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되었던 적자 장남인 레이시안 때와 달리, 장녀인 라트라실이 후계자에 오르는 데는 서자 차남인 트라탈라의 세력을 넘어서야 함을 알 수 있다. 신하들은 직접적으로 ‘황자’와 ‘황녀’라는 젠더 차이를 호명하지는 않지만, 정통성이 없더라도 ‘황자’ 편을 두둔한다. 라트라실은 황제가 되기 위해 제왕학과 검술과 역사 등 황태녀 교육을 받는데 2년 동안 오롯이 집중한다. 경쟁심으로 이복오빠 트라탈라에게 지고 싶지 않았고, 호승심으로 반대 세력의 기대를 꺾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트라실은 이야기의 초반에 트라탈라의 세력을 꺾고 황제에 오르지만, 이야기의 후반에 다시 한번 오빠로 인한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이번에는 후계자를 내려놓았던 친오빠 레이시안이 문제다. 레이시안은 동생 라트라실

21) 알파타르트, <하렘의 남자들> 6화, 네이버시리즈, 2020.03.01.

이 로드인 것을 알게 되고, 라트라실이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라와 국민에게 해를 입힐지 모른다면 스스로 황제에 나서려고 한다.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황제’ 라트라실보다 ‘황제’ 레이션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모인다. 라트라실은 오빠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며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인다.

〈재혼 황후〉의 나비에는 오빠 코샤르가 있다. 나비에는 차별하면서도 이성적인 반면, 코샤르는 자유분방하며 충동적인 성품이다. 코샤르는 동대제국에서 추방되고 변방으로 다니면서 전쟁에서 명성을 떨치기도 한다. 코샤르는 사고를 치더라도 트로비 공작가의 계승권을 평생 지니는 아들이고, 나비에는 고유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려면 자기 증명을 해야 하는 딸이다. 코샤르가 낙태약이나 폭력 문제로 나비에의 위신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나비에는 유능한 황후로서 오히려 사고뭉치인 오빠를 살뜰하게 돌보며 국정을 능숙하게 수행한다. 어려서부터 황태자의 정략결혼 상대로 선대 황후를 따라다니며 황후가 해야 할 일들과 황궁 예법을 교육받는다. 먹는 것과 노는 것을 절제하며 제국 전체의 안정을 책임지는 황후로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기품 있게 행동하는 법을 익힌다. 결국 나비에는 외교적 수완이 능숙한 대륙 연합의 수장으로 인정받으며 자기 증명을 한다. 이는 처음부터 능력이 뛰어난 알파걸로서의 면모가 아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나비에의 열매다. 그녀의 ‘황후 수업’은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수행’임을 여실히 보여주지만 말이다.

〈남편 도둑〉의 클레이시는 오빠 둘과 언니 둘을 둔 다섯째 막내딸이지만 그 역할은 유사 장녀라고 할 수 있다. 클레이시는 큰 언니 마리가 죽자, 마리의 딸 조카 메련을 도맡아 키우게 된다. 부모님은 외교관으로 타국에서 일하는 중이고, 오빠 둘과 둘째 언니는 그들의 삶에만 몰두해서 조카 메련을 맡아 키울 마음이 없다. 클레이시는 마리의 유언과 마리의 죽음에 연

결되어 있다는 죄책감에 메린을 딸처럼 키우고 아낀다. 클레이시는 부모 형제의 도움 없이 메린을 돌보며, 독립하기 위해 자신의 앞길도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클레이시에게 오빠 둘은 그녀가 대공비가 되어서야 연락하는 존재감 없던 먼 친족과 마찬가지로 존재다.

라트라실, 나비에, 클레이시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감정의 정치학은 ‘오빠라는 존재를 둔 여동생’에서 출발한다. 오빠들은 가부장적 권력을 너무 쉽게 가지지만, 여동생들은 독립의 획득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그녀들은 생존 전략으로서 ‘자기 증명을 해야 하는 딸’이라는 정체성에 가깝다. 라트라실이 ‘오빠와 경쟁해야 하는 여동생’이라면, 나비에는 ‘오빠를 돌보는 여동생’, 클레이시는 ‘계승권만 가져간 채 부재하는 오빠를 둔 여동생’이다. 딸은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돌봄과 가족 질서 유지를 담당하도록 사회화된 인물이다. 이들은 아들처럼 권력을 상속받지 못하면서도, 아들보다 먼저 감정노동과 가족 관계 유지의 책임을 부여받는다. 동시에 독립 후에야 획득되는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자기실현과 자기관리를 위해서 딸은 시련과 성장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성장한 딸은 여성 독자들의 공감과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알파타르트는 여성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보여준다. 알파타르트는 현시대에 자기 증명을 요구받는 딸들이 시련과 경쟁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자기 결정권을 지니고 자기실현을 하게 되는 꿈을 꾀다. 이들이 가부장과 싸우면서 시련과 경쟁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안정된 신분과 재산과 평화를 얻게 되기를 갈망한다.²²⁾ 이는 ‘불순한 욕망’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 나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응원하는

22) 예를 들어 〈남편 도둑〉의 클레이시는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해요.”(37화), “난 완벽한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난 속물이라 행복한 거였어.”(127화)라며 안정된 신분과 재산에 대한 욕망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것”²³⁾에 가깝다. 여성의 다양한 욕망을 그대로 긍정하는 것, 이 생생한 욕망의 현장이 이 시대 로맨스판타지가 놓인 자리다.

또한 알파타르트 웹소설에는 주인공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을 둘러싼 사각 관계가 존재 한다. ‘후회하는 전연인’과 ‘사연 있는 악녀’와 ‘완벽하지 않은 남주’다. ‘후회하는 전연인’들은 ‘주인공의 연인’이라는 안정적 위치에서 스스로 벗어나 ‘후회남’이 된다. ‘후회남’은 주인공에게 돌아와 다시 사랑을 갈구하지만, 이미 그녀의 곁에는 다른 남자가 존재한다. ‘후회하는 전연인’은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이 홀로 시련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서사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재혼 황후〉의 나비에는 완벽한 황후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소비에슈는 그녀와 이혼하고 후회하는 전남편이 된다. 그 후회함의 정도가 애절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중인격자가 된다. 낮에는 나비와 약혼했던 시절인 황태자 시절로 돌아가고, 밤이 되면 현재 이혼한 황제의 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소비에슈의 후회는 외전 ‘소비에슈 회귀’ 편(326화~337화)에 잘 드러나 있다.

〈하렘의 남자들〉의 후회하는 전연인은 하이신스다. 하이신스는 교제했던 라트라실을 두고 내전에서 이기기 위해 다가 가문의 딸과 정략결혼을 한다. 하이신스는 황권이 안정되는 5년 후에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라트라실은 거절한다. 라트라실은 황제가 되어 9명의 후궁을 둔다. 하이신스는 자신도 후궁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청혼하지만 거절당하고 친구로 남는다.

〈남편 도둑〉의 후회하는 전연인은 원래 세상의 데르닉이다. 데르닉과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전에 친구였지만, 메린의 계략으로 데르닉은 클래

23) 안지나, 『어느 날 로맨스 판타지를 읽기 시작했다』, 이음, 2021, 108쪽.

이시를 원수로 오해하고 만다.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달은 데르닉은 클레이시의 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한다. 그리고 클레이시에게 누명을 씌우고 모함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체포하면서, 클레이시의 오명을 벗긴다.

알파타르트의 웹소설에는 악녀가 등장하지만, 알고 보면 다들 ‘사연 있는 악녀’다. 이야기의 서두에는 악랄하게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후반으로 가면 악녀의 사연이 조금씩 흘러나온다. 악녀는 주인공의 적대세력으로 등장하지만, 이 또한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이 시련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실현을 하면서 성장하는 서사와 경쟁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악녀 역시 사연이 있었다는 것에 공감하며 인물의 입체성을 이해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왜 자꾸 내 방 안에서 있는 거야? 뭘 훔쳐 가려고?”

르베티가 차갑게 묻자 라스타는 당황해서 열린 고개를 저었다.

“훔쳐 가려고 있던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림이 예뻐서…… 라, 라스타도 저분을 좋아해요. 저분은 저…… 저분이 좋아서 그냥 본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라스타는 도둑질하지 않아요.”

황급히 둘러대던 라스타는 르베티의 눈치를 살폈다. 변명을 들었지만 르베티는 여전히 신경질 가득한 얼굴이었다. 라스타가 우물거리자 르베티는 ‘쾅쾅’ 발소리를 내면서 제 방에 들어가더니 라스타에게 단호하게 경고했다.

“내 그림이야. 내가 보려고 모은 그림이라고. 쳐다보지 마.”

“라스타는…….”

“재수없어.”²⁴⁾

〈재혼 황후〉의 라스타는 황후 나비에에게 “이젠 황후 폐하와 저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된 거잖아요. 식구요. 같은 남편을 두었으니까요. 언니라고 불

24) 알파타르트, 〈재혼 황후〉 318화, 네이버시리즈, 2020.03.23.

리도 괜찮을까요?”라며 이야기의 초반(5화)부터 독자들의 원성을 듣는 대표적인 악녀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지른다. 하지만 위 인용문을 보면 라스타가 처음부터 악녀였던 것은 아니다. 라스타는 로테슈 자작 가문의 노예로 르베티의 방에 모아둔 황후 나비에의 초상화를 보면서 르베티를 따라서 황후를 순수하게 동경한다. ‘만약 라스타가 나비에에게 보내졌다면’이라는 외전(318화~325화)도 그녀가 만난 사람들의 선택과 주변 환경에 의해 그녀가 충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렘의 남자들〉의 안야도미스는 라트라실과 대결하는 악녀다. 대적자 안야의 영혼에 전대 로드였던 도미스의 육체를 입은 안야도미스는 라트라실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 안야도미스는 라트라실의 후궁 칼라인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은 없다. 이런 안야도미스에게도 사연은 있다. 대적자였던 안야는 사랑했던 부모님과 연인을 도미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안야와 도미스간의 서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운명과 같이 반복된다.

〈남편 도둑〉의 메린은 다섯 살 아래의 조카로, 클레이시의 연애와 결혼을 방해하는 악녀다. 독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클레이시를 쫓아다니며 거짓말과 이간질로 휘방을 놓는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한 메린은 시간을 되돌려 클레이시의 다정한 남편을 빼앗을 생각까지 한다. 이런 메린 역시 사연이 있다. 메린은 클레이시가 자신의 엄마 마리를 죽였다고 오해하면서 살아왔다. 메린은 유모인 캐런에게 ‘클레이시가 나쁜 이모이며, 엄마 마리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며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알파타르트의 웹소설에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다들 ‘완벽하지 않은 남주’다. 알파타르트 웹소설에는 로맨스판타지 최고의 남주가 없다.

대부분의 로맨스판타지에서는 자신의 작품에서 ‘로판 최고의 남주’ 캐릭터가 나오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알파타르트는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을 원탑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녀가 성장하는 서사를 우선시한다. 완벽하지 않은 남자 주인공은 로맨스판타지 세계를 거스르며, ‘완벽한 남자 주인공은 없다’는 현실성을 이해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재혼 황후〉의 하인리는 연한 금발 머리에 신비로운 보라색을 띤 눈동자를 지닌 아름다운 남자로 그려진다. 나비에에게 대형견남, 다정남, 연하남으로 다가간 하인리는 나비에 한정 순정남이다. 이런 하인리도 완벽하지는 않다. 서왕국의 왕자였던 하인리는 전쟁을 남몰래 준비하면서 마법사의 마력을 빼앗는 현상을 주도하거나, 나비에에게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동대제국의 귀족 릴테앙 대공의 입에 돌을 넣고 꺾매버리는 등의 잔인한 형벌을 내린다. 하인리는 나비에 한정 장난꾸러기의 모습을 보이지만, 제국의 황권을 위해 즈멘시아 공작가를 몰살하는 등 잔인한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을 간혹 내보인다.

〈하렘의 남자들〉에는 9명의 후궁이 나온다. 뇌섹남, 조신남, 대형견남, 춘데레남, 순정남, 직진남 등 다양한 유형의 남자 후보군이 나오지만 표지 일러스트에 나오는 두 명을 남주로 꼽자면 라나문과 서넛이다. 라나문은 타리움 제국 최고의 잘생긴 외모로 칭송받으면서 대적자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대의에 관심이 없고, 삶에 열정이 없는 성격으로 그려진다. 서넛은 타리움 제국의 최소 근위 단장으로 검술에 뛰어나고 성실하다. 서넛은 라트라실의 편에 서다가 죽음 직전에 뱀파이어가 되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약점을 지니게 된다.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인 라트라실에게는 원탑 남자 주인공이 필요하지 않다.

〈남편 도둑〉의 기신은 원래 무뚝뚝하고 차가운 성품으로 그려진다. 기신은 클레이시를 사귀면서부터 클레이시 한정 따뜻하고 섬세한 성격을 보여

준다. 클레이시의 말이라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일단 믿고, 돕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고 차가워 보이는 표정의 기신을 어렵게 여긴다. 알파타르트 웹소설에는 완벽한 여주는 있을지언정 완벽한 남주는 없다.

이처럼 알파타르트 웹소설에는 주인공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을 둘러싸고 ‘후회하는 전연인’과 ‘사연 있는 악녀’와 ‘완벽하지 않은 남주’가 사각 관계로 존재한다. 이는 성장 서사를 핵심 축으로 ‘후회하는 전연인’은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이 홀로 시련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서사를 마련하는 기능으로, ‘사연 있는 악녀’는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이 시련을 보내는 시간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면서 성장하는 서사와 경쟁하는 기능으로, ‘완벽하지 않은 남주’는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을 원탑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녀의 성장 서사를 우선시하는 기능으로 뒷받침된다.

3. 플롯: 선행기법과 반복 서술

제라르 주네트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시간의 방식에 주목한다. 주네트는 이를 순차order, 지속duration, 빈도frequency로 구분한다.²⁵⁾ 사건이 배열되는 순차 방식은 역행analepsis과 선행prolepsis이 있고, 실제 사건 진행과 서술 시간의 속도 차이를 분석하는 지속은 요약, 생략, 묘사, 장면으로 구분되고, 사건이 서술되는 횟수를 분석하는 빈도는 압축서술과 반복 서술로 나뉜다. 이 장에서는 알파타르트 웹소설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기법과 반복 서술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25) S.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역, 푸른사상사, 2003, 77-99쪽.

“이혼을 받아들여겠습니다.”

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떠오르는 옅은 미소를 발견한 건
나 하나뿐일까?

소비에슈는 반쯤은 안도한, 반쯤은 미안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가식일지도 모르지만 진심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나는 좋은 동료였고 완벽한 황후였다.²⁶⁾

위 인용문은 로맨스판타지에서 정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재혼 황후〉의 1화 첫 장면이다. 첫 장면에서 이혼을 선언하고 곧 재혼 승인 요구를 하는 장면은 장르 내에서 많이 차용되었다. 이혼을 받아들여겠다고 말하는 여자의 말 뒤로 ‘그녀의 입가에 떠오르는 옅은 미소’를 보는 순간 독자들은 심경이 비틀어진다. 악녀의 존재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자는 ‘반쯤은 안도한, 반쯤은 미안한’ 얼굴로 여자를 바라본다. ‘지금까지 좋은 동료였고 완벽한 황후’이기까지 했는데 이들은 왜 이혼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재혼을 바로 하는 것일까.

〈재혼 황후〉는 기본적으로 순차적 진행을 따르지만, 종종 인물들의 과거 회상(역행)을 통해 인물의 감정과 행동에 공감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초반부에서 ‘이혼 장면’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예견하며 서술한 선행기법에 속한다. 자극적인 사건을 먼저 서술한 후, 이전으로 돌아가 사건의 맥락을 점차 설명하면서 그 사건이 성취될 때까지 독자의 호기심을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작품에서 중요한 사건(황후의 이혼, 라스타와의 갈등, 하인리와의 만남)은 상세한 장면 서술로 이루어지며, 독자의 몰입도를 높인다. 반면, 나비에의 일상적 삶이나 정치적 배경 설정은 요약과 생략을 통해 서술 속

26) 알파타르트, 〈재혼 황후〉 1화, 네이버시리즈, 2018.11.02.

도를 조절하면서 플롯의 집중력을 유지한다. <재혼 황후>의 핵심 사건인 ‘이혼 선언’ 장면은 작품 초반(1화)과 중반(83화) 두 번에 걸쳐 반복 서술된다. 이 반복 서술을 통해 독자는 사건의 의미를 처음과 달리 재해석할 수 있고,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에 공감하는 효과를 얻는다.

<하렘의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하렘의 남자들>의 핵심 사건인 ‘하렘 선언’ 장면은 작품 초반 1화와 8화 두 번에 걸쳐 반복 서술된다. 라트라실이 황제에 오른 후, 라트라실은 “황제가 황후 하나만 두면 외척 세력이 지나치게 힘을 키우니, 힘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다른 후궁들을 받아야 한다”는 건 대신들의 말이 아니냐며, 국서를 뽑기 전에 후궁을 다섯 정도 두어야겠다고 하렘을 선언한다. ‘하렘 선언’이라는 자극적 사건의 선행적 암시, 즉 선행기법을 통해 작가는 향후 벌어질 사건에 대해 독자가 긴장감과 기대감을 갖도록 유도한다.

<남편 도둑> 역시 마찬가지다. <남편 도둑>은 흑마법의 힘으로 시간을 돌린 메린과 클레이시가 절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장면을 이야기의 첫 장면(1화)으로 담는다. 절벽에 매달려 생사를 다투는 이 장면은 이야기의 중반(90화)에서 반복 서술된다. 한 사람은 손을 놓으려 하고, 한 사람은 손을 놓지 않으려는 이 장면은 독자들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면서 예견된 사건으로 선행 서술된다.

알파타르트 웹소설은 기본적으로 순차적 진행을 따르면서 회상기법도 종종 사용한다. 하지만 1화와 이야기의 중반에 핵심 주요 사건을 한 번 더 배치함으로써 반복 서술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자극적인 사건을 먼저 선행 기술한 후, 앞으로 있을 일을 기다리면서 고구마 구간을 건디는 것이다. 사건의 맥락이 점점 풀리면서 독자는 예견된 사건이 드디어 성취될 때 사이다 구간을 만나게 된다.

알파타르트 플롯의 시학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수미상관과 대구

법의 묘미다. 〈하렘의 남자들〉 1화의 제목은 ‘후궁부터 들이겠다’며 하렘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 1,000화 완결의 제목은 ‘경들의 말이 옳아’이다. 1화의 첫 문장은 “경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이다. 라트라실은 이어서 “경들의 말이 옳아.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우선 후궁들을 들이기로 하였다.”고 말한다. 1,000화에서 라트라실이 다시 한 번 “경들의 말이 옳아.”라고 내뱉는 순간 대신들은 트라우마와 같은 황제의 발언에 조용해진다. 1화 시작과 1,000화 완결의 순간에 라트라실은 “경들의 말이 옳아.”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만, 이내 상상하지 못할 선포를 하는 반전의 수미상관을 이룬다.

〈남편 도둑〉의 대구법은 클레이시가 사랑하게 된 ‘원래 세상의 기신’과 ‘지금 세상의 데르닉’의 대사로 절묘하게 보여준다. 시간을 되돌렸다고 생각했던 메련과 클레이시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평행세계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된다. 클레이시는 ‘지금 세상의 데르닉’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데르닉은 “천천히 내려와요. 계속 사랑하면서 기다릴게요.”(248화)라고 말한다. ‘원래 세상의 기신’은 죽어 하늘나라에서 클레이시에게 말한다. “천천히 올라와요, 클레이시.”(256화) 데르닉과 기신의 사랑 고백은 아름답게 대구를 이룬다.

알파타르트 웹소설에서는 각 회차의 제목이 대구를 이루는 경우가 많고, 한 화 내에서 대구를 이루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하렘의 남자들〉에서 가짜 임신(342화), 놀란 사람 1번(343화), 부정하는 사람 1번(344화), 놀라지 않는 사람 1번(345화) 식이다. 또 평화롭던 옛날이야기(643화), 평화롭지 않던 옛날이야기(644화), 평화를 잃은 이야기(645화), 나의 평화는 깨졌지만(646화), 그대는 계속 평화롭기를(647화) 등이다.

알파타르트 웹소설에는 공통적인 모티프가 나타난다. 바로 ‘연인 상실의 모티프’와 ‘편지 연인의 모티프’이다. 연인 상실의 모티프는 위장에서 다른

‘후회하는 전연인’과 의미가 이어지는 맥락이다. 알파타르트의 핵심 서사인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의 성장 서사에서 연인 상실 모티프는 홀로 시련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서사를 마련한다. ‘편지 연인의 모티프’는 연인이 되기 전 편지를 항상 주고받는다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재혼 황후〉에서 나비에와 하인리는 이야기의 초반부터 새의 다리에 묶인 쪽지를 주고받는다. “나는 신년제에 도착할 외국 손님입니다. 이 편지는 술을 먹고 쓰는 중.”(5화)이라는 하인리의 장난스러운 쪽지에 나비에는 “술에 취한 새가 날아와 돌려보냅니다. 제대로 길을 찾아간다면 주인보다는 영특할 테니 다행”(5화)이라고 답장을 한다. 그 후 둘은 쪽지를 통해 마음을 위로받으면서 진심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한다.

〈하렘의 남자들〉에서 라트라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전연인인 하이신스와 국서 타시르다. 하이신스는 전서조를 보내 라트라실과 사적이고 내밀한 편지를 주고받는다. 라트라실의 9명의 후궁 중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하는 관계는 국서가 되는 타시르다. 타시르는 양제스 상단의 후계자이면서 동시에 암살 집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초대 황제로부터 내려온 비밀정보 조직인 흑림의 수장이다. 타시르는 일이 생길 때마다 흑림의 표식을 사용해서 라트라실과 쪽지를 주고받는다.

〈남편 도둑〉의 클레이시는 ‘원래 세상의 기신’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전하고, 연인으로 발전한다. 클레이시는 어릴 적 데르닉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언니 마리의 농간으로 수신인과 발신인이 모호하게 바뀌게 되면서 데르닉과 오해를 쌓는 과정을 겪는다. 클레이시는 데르닉과 주고받은 편지를 첫사랑 편지라며 비밀방에 고이 숨겨둔다. 경비대에 의해 편지의 주인을 제대로 찾고, 은닉되어 있던 글자들을 찾으려 하면서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진다.

알파타르트의 주요 사건은 ‘남편 찾기’와 ‘제국 구하기’로 나타난다. 〈재

혼 황후>에서 나비에는 재혼에 성공하고, 동대제국과 서대제국 뿐만 아니라 대륙 연합의 수장까지 맡게 된다. <남편 도둑>의 클레이시는 원래 세상의 첫 번째 결혼뿐만 아니라 평행세계의 두 번째 결혼 또한 성공한다. 또한 제국에 위협이 되는 흑마법사와 황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제국의 평화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탠다. <하렘의 남자들>에서 라트라실은 9명의 후궁을 지킬 뿐만 아니라 로드로서 세계 평화를 이룬다. 알파타르트에게 로맨스판타지는 ‘오빠를 둔 여동생’이 힘든 시련의 시간을 지내고 독립적으로 안정된 신분과 재산과 평화를 이루는 자기실현을 이루는 장이다.

이처럼 알파타르트 웹소설에서 플롯의 시학은 이야기를 구조화할 때 선행기법과 반복 서술의 효과를 서두에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기대감을 선사 한다. 또한 수미상관과 대구법을 절묘하게 사용하면서 독서라는 면밀하고 섬세한 쾌감을 느끼게 만든다. ‘연인 상실의 모티프’와 ‘편지 연인의 모티프’라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인물의 관계를 전개 시키며 ‘남편 찾기’와 ‘제국 구하기’라는 이중 플롯의 축을 세우면서, 이야기의 막을 내린다.

4. 웹소설: 알파타르트×치런의 브랜드

최배은은 웹소설의 서술 형식을 ‘긴장의 연속 플롯, 시청각적 인물 형상화, 인물 초점화, 문단의 파괴’²⁷⁾로 설명한다. 김경애는 웹소설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문단 구성의 운문화, 스토리와 담론의 순정만화화, 연속극 형태로의 진화’²⁸⁾로 요약한다. 웹소설의 매체적 특성을 활용한 서사전략은

27) 최배은, 「한국 웹소설의 서술형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3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7, 65쪽.

28) 김경애, 「'보는'소설로의 전환, 로맨스 웹소설 문화 현상의 함의와 문제점」, 『인문사회

‘위기-해소-위기’의 연재 전략, 대사 위주의 대본 전략, 모바일 기기에 맞는 편집 전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일러스트에 주목하고자 한다. 웹소설의 특성상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독자들은 글보다 시각 이미지에 더 빠르게 반응하며, 일러스트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즉각적 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특히 로맨스판타지에서는 감정과 관계의 미묘한 뉘앙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의 표정이나 시선 처리 같은 세부 요소를 통해 독자가 정서적으로 더 깊이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웹소설 특히 로맨스판타지에서 일러스트와 아이콘은 소설을 ‘보게 하는’ 큰 역할을 한다. 알파타르트 웹소설 세 작품의 일러스트와 아이콘은 모두 일러스트레이터 치런²⁹⁾이 맡았다. <재혼 황후>는 알파타르트×치런의 협업으로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정전이 되었다. 후기작 <하렘의 남자들>과 <남편 도둑> 역시 알파타르트×치런의 조합이기에 믿고 본다는 독자의 댓글들을 만나볼 수 있다.³⁰⁾

일러스트는 개별 작가나 작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중요한 상업적 수단이다. 인기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와의 협업은 작품의 가시성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며, 독자들이 특정 작가나 작품을 선택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러스트는 첫인상과 직결되는 시각적 마케팅 전략으로 필수적이다.

21) 제8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1367쪽.

29) 활동명: 치런 또는 괜찮은산호초 @a_fine_c, 인스타그램

30) 네이버시리즈에서 <하렘의 남자들>이 연재되는 첫날, 꿈꾸는 악몽(lam-****)은 “정식 연재 전부터 보던 독자입니당~ 고구마도 없구여 여주가 사이다여서 너무 좋구 남주후 보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알파타르트님×치런님 믿고 봅니다!!!”(2020.03.01.) dhdfkflsls(hssf****)은 “세상에... 일러 미쳤... 두 분 작가님 이 정도면 영혼의 단짝 아닌가여”(2020.03.01.) 완두(iesq****)는 “하렘의 남자들이 연재된다니!!!그것도 치런님 일러로!!!”(2020.03.01.) 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림 2〉 알파타르트×치런의 작품 표지 일러스트(네이버시리즈)

〈그림 2〉는 알파타르트×치런의 작품 표지 일러스트다. 좌측부터 〈재혼 황후〉, 〈하렘의 남자들〉, 〈남편 도둑〉이다. 표지 일러스트는 작품의 분위기와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독자들의 기대감과 몰입감을 높인다. 치런의 일러스트는 회화적 리얼리즘과 고전주의적 장식을 결합한 화려하고 섬세한 화풍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해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미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여성 중심의 서사 구조를 강조한다.

우선, 치런은 인물 중심의 클로즈업 구도를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감정선을 극대화하고, 손의 동세나 눈빛의 응시 방향을 통해 서사의 핵심 감정을 비언어적으로 전달한다. 예컨대 〈재혼 황후〉의 표지에서는 황후 나비에를 중심으로 전남편인 소비에슈와 현재 남편인 하인리를 대각선상에 배치함으로 나비에의 주체성과 그녀의 남자 주인공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드러낸다. 한편 소비에슈의 손은 나비에의 손을 쥐고 있지만, 그녀의 눈은 하인리의 눈과 맞춤으로써 서사의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인물 간의 공간적 배치와 시선의 교차는 서사 내부의 권력 역학과 감정의 긴장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색채 운용 또한 치런의 일러스트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금색, 붉은색, 검

정과 같은 상징색은 각 인물의 서사적 권력 위상과 감정적 상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화면 전체에 고전 회화적 깊이와 상징적 무게감을 부여한다. <남편 도둑>의 표지에 나타난 짙은 적색의 장미와 붉은 피처럼 흐르는 드레스 주름은 욕망과 파괴, 고통이 혼재된 전체 서사의 정조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그러면서도 클레이시의 손에 끼여져 있는 로사 결혼반지와 그녀를 감싸고 있는 두 손 중의 하나에 로사 결혼반지를 끼움으로써 서사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다.

나아가 치련의 여성 인물 묘사는 전통적인 로맨스 시각 이미지와 차별화되는 지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남성의 응시에 의해 대상화된 여성 이미지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체적으로 응시하거나 능동적 위치에 선 여성 인물을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서사의 권력 중심을 시각적으로 전환시킨다. 각 표지에는 '자기 증명을 하는 딸들'인 나비에, 라트라실, 클레이시가 능동적인 자세와 시선으로 중심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알파타르트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원탑 여성 주체 서사 전략과 긴밀하게 호응하며, 시각적 담론 차원에서 또 다른 서사를 확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5. 로맨스판타지를 이끌어가는 방법

지금까지 알파타르트의 웹소설이 로맨스판타지 장르 내에서 어떠한 서사 전략을 통해 독자들과 교감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의 목적은 로맨스판타지의 대표 작가인 알파타르트의 서사 전략을 인물, 플롯, 웹소설의 세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고, 알파타르트가 젠더 감수성과 대중적 서사 규범을 조율하며 장르의 문법을 어떻게 재

구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먼저, 알파타르트가 창조한 인물은 ‘오빠라는 존재를 둔 여동생’이라는 위치에서 시작한다. ‘오빠라는 존재를 둔 여동생’은 ‘자기 증명을 하는 딸’로 거듭난다. 딸은 젠더 위계 구조 안에서 아들처럼 권력을 계승 받지 못하면서도 감정노동과 돌봄의 책임을 수행하며 독립적 자기 결정권을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과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알파타르트의 주인공 나비에와 라트라실과 클레이시는 억제된 욕망, 정서적 돌봄의 책임감과 함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빠라는 존재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경쟁과 독립의 서사를 완성하며, 현대 여성 독자들의 욕망과 감정적 공감을 이끌며 복합적으로 확장된 젠더 감수성을 드러낸다.

알파타르트 웹소설에는 주인공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을 둘러싸고 ‘후회하는 전연인’과 ‘사연 있는 악녀’와 ‘완벽하지 않은 남주’가 사각 관계로 존재한다. 이는 성장 서사를 핵심 축으로 ‘후회하는 전연인’은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이 홀로 시련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서사를 마련하는 기능으로, ‘사연 있는 악녀’는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이 시련을 보내는 시간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면서 성장하는 서사와 경쟁하는 기능으로, ‘완벽하지 않은 남주’는 ‘자기 증명을 하는 딸’을 원탑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녀의 성장 서사를 우선시하는 기능으로 뒷받침된다.

두 번째로, 알파타르트의 플롯은 선행기법과 반복 서술이라는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다. 알파타르트는 이야기를 전개할 때 선행기법으로 핵심 사건을 미리 암시하고 후에 다시 반복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사건의 맥락과 의미를 재해석하며 더욱 긴장감 있게 서사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수미상관과 대구법을 활용한 세부적이고 미학적인 문장 구조는 독자들에게 심미적 쾌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인 상실의 모티프’와 ‘편지 연인

의 모티프'를 활용하여 '남편 찾기'와 '제국 구하기'라는 이중 플롯 짜기를 완성한다. 이는 로맨스판타지 장르가 지닌 전형적 서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독자적 스타일을 구축한 것이다.

셋째로, 웹소설 측면에서 알파타르트와 일러스트레이터 치런의 협업은 강력한 브랜드를 형성한다. 치런의 일러스트는 회화적 리얼리즘과 고전주의적 장식을 결합하여 작품의 분위기와 인물의 감정선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한다. 또한 여성 인물을 대상화된 수동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서사적 권력을 지닌 주체로 그려냄으로써 알파타르트 작품의 젠더 감수성과 주제 의식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리하면 알파타르트의 서사 전략은 인물의 형상화, 플롯의 서술 구조, 웹소설의 시각적 전략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로맨스판타지 웹소설의 미학적·장르적 규범을 확장하고, 현대 여성 독자들의 다양한 욕망과 젠더 감수성을 깊이 있게 반영한다. 현대 여성은 무임승차자가 아니라 자기 증명을 해야 하는 시대에 던져졌다. 알파타르트는 주체적인 원탑 여성 중심 서사를 축으로 남녀의 고정된 젠더 역할을 전복하거나 재구성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며 여성의 감정과 경험을 중심으로 정서적 공감 전략을 활용한다. 이는 로맨스판타지의 장르 관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관습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욕망의 틈새를 공략한 장르 문법의 '차이와 반복'을 드러낸다.

알파타르트는 단순히 로맨스판타지의 인기 작가라는 위상을 넘어서, 장르 내부에서의 전복과 혁신을 통해 동시대 대중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도하는 내러티브 기획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웹소설 장르와 매체적 특성이 더욱 확장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별 작가의 독창적 서사 전략과 독자 반응의 구체적 분석을 심화하여 로맨스판타지의 지속적 진화와 발전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알파타르트, <재혼 황후> 337화 완결, 네이버시리즈, 2018.11.02.~2023.01.24.
알파타르트, <하렘의 남자들> 1,000화 완결, 네이버시리즈, 2020.03.01.~2023.06.30.
알파타르트, <남편 도둑> 258화 완결, 네이버시리즈, 2024.04.04.~2024.12.24.

2. 논문과 단행본

- 권경미, 「로맨스판타지 웹소설의 신계급주의와 서사 특징: 책빙의물과 회귀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84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09-140쪽.
고민정, 「한국 웹소설의 플랫폼 성장과 가능성」, 『전자출판연구』 제13호, 한국전자출판학회, 2019, 32-41쪽.
김경애, 「보는'소설로의 전환, 로맨스 웹소설 문화 현상의 함의와 문제점」, 『인문사회 21』 제8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1367-1387쪽.
김도희, 『로맨스판타지 장르 연구 : 네이버 웹소설 『재혼 황후』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21.
김예니, 「대중서사 속 클리셰의 변화양상」, 『돈암어문학』 제42집, 돈암어문학회, 2022, 7-35쪽.
류수연, 「여성인물의 커리어포부와 웹 로맨스 서사의 변화: 로맨스판타지의 '악녀'주 인공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제29집,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35-58쪽.
안상원,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219-234쪽.
안지나, 『어느 날 로맨스 판타지를 읽기 시작했다』, 이음, 2021.
이지, 『로맨스판타지 웹소설 IP의 웹툰 전환 연구 : <재혼 황후>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22.
조소연, 「로맨스판타지 웹소설에 나타난 젠더 재현 양상과 그 의미」, 『대중서사연구』, 제30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4, 433-464쪽.

최배은, 「한국 웹소설의 서술형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3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7, 65-97쪽.

텍스트릿, 「판타지가 로맨스를 만났을 때」, 『비주류선언』, 요다, 2019.

S.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역, 푸른사상사, 2003.

3. 기타자료

김성현, 〈신민아·주지훈·이종석·이세영, '재혼 황후'로 뭉친다〉, 『YTN』, 2025.04.14.,
https://star.ytn.co.kr/_sn/0117_202504140949383527. (검색일: 2025.06.14.)

(주)비욘드리서치,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주)비욘드리서치,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5.

케이디앤리서치, 『2020년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Strategies of Alphatart's Web Novels

Moon, Eun-Hye(Kyungso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Alphatart, one of the leading authors in the web novel market, by analyzing them across three layers, which are the character, the plot, and the web novels. This study further explores how Alphatart negotiates gender sensitivity and popular narrative norms, while reconfiguring the conventions of genre narrative.

The protagonist is positioned within the structure of a 'Daughters engaged in self-legitimation' occupying the unique role of a 'A younger sister with an older brother.' She struggles to break free from the shadow of power represented by her brother, competing against him throughout her journey. Unlike her brother, who inherits power naturally by birthright, she must strive for independence through her own efforts. Her narrative follows a trajectory of trials and competition, culminating in her growth into a self-actualizing woman, as reflected in the post-'feminism reboot' discourse.

In addition, Alphatart commonly employs both the technique of prolepsis and the strategy of narrative repetition. Through prolepsis, a provocative event is presented first, followed by a gradual exposition of the preceding context, thereby sustaining the reader's curiosity until the event reaches its resolution. Narrative repetition, in turn, enables readers to reinterpret the significance of events differently from their initial understanding and fosters greater empathy with the protagonist's psychological development.

Illustratio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making web novels a 'visual' experience. By visually depicting the atmosphere of the work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figures, illustrations enhance readers' anticipation and immersion. The

illustrations produced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Alphatart and Chirun are characterized by a lavish and delicate style that combines painterly realism with classical ornamentation. This aesthetic not only fulfills the visual expectations of the romance fantasy genre but also serves to highlight the female-centered narrative structure.

Alphatart's narrative strategy integrates character construction, plot structure, and the visual strategies of web novels to expand the aesthetic and generic norms of the romance fantasy genre, while deeply reflecting the desires and gender sensibilities of contemporary female reade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dentifying Alphatart not merely as a popular author within the romance fantasy domain, but as a narrative designer who proposes new possibilities through subversion and innovation within the genre itself.

(Keywords: Alphatart, narrative strategy, romance fantasy, character, plot, web novel)

논문투고일 : 2025년 4월 30일

논문심사일 : 2025년 6월 12일

수정완료일 : 2025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5년 6월 18일